東亞日報
夕刊 二十七日
今日四面
東亞日報社 發行所
電話 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社說

多難하든 一九三一年 (一)

世界政局의 回顧(上)

一

多難하든 一九三一年도 將次 數日을 앞두고 지나가려 한다. 過去의 一年間을 回顧하고 將來할 新年의 前途를 展望함도 決코 無意味한 일은 아닐 것이다. 今年은 內로 外로 多事한 年이었다. 內로 失業難과 財政難에 시달리고 外로 平和의 幻想이 列强을 어지럽히게 하였다. 新春 突發한 消息은 傳하건대 歐洲의 一角에 있는 西班牙王國의 沒落이었었다. 人民의 自由와 壓制에 倒壞한 베렝겔 內閣의 뒤를 이어 레라, 알바레스, 마두니 等 政界의 名星이 組閣에 着手하였으나 모다 失敗에 歸하고 元老아두날의 人材內閣을 組織하고 選擧即行, 適法改正, 責任政府를 宣言하야 表面靜穩을 保하얏스나 四月十二日에 擧行한 市町村會議員選擧에 共和黨이 大勝하야 『알폰조』王은 不得已 政權을 擲棄하고 亡命치 아니치 못하게 되었으니 이러하야 西班牙는 無血의 共和革命을 達成하고 歐洲七王國에서 一王國을 減하게 하얏다.

二

西班牙共和國의 成立의 뒤를 이어 全世界에 注目을 끌은 것은 獨逸의 財政難이었었다. 米國恐慌의 影響을 받아 全般產業이 萎縮되었을뿐아니라 財政上에는 十億圓의 歲入減을 보아 窮狀이 形言키 어려웠다. 六月六日 大統領『힌덴부르그』은 緊急增稅令을 發하야 失業保險金, 社會政策金의 減下를 斷行하였으나 收拾하지 못하고 마침내『힌』大統領으로 하야금 世界에 救濟의 悲鳴을 올리게 하엿다. 多幸히 米國大統領『후버』의 戰債及賠償의 一個年間 猶豫의 宣言에 依하야 一時難局을 收拾하였으나 義者한 大統領의 賠償支拂不能의 聲明은 各國의 短期『크레디트』回收의 誘發을 促하야 저 有名한『다나트』銀行을 비롯한 有數한 金融機關의 支拂停止를 告하게 되얏다. 이것도 國際決濟銀行의 出馬와『빠아젤』에 會合한 十個國銀行代表의 報告에 依하야 九月에 再開한 諸銀行은 不穩裡에 經過하얏스나 失業者는 四百六十萬으로 增加하고 不況은 深刻하야 가서 社會的, 政治的 不安이 增大함에 大統領은 數回의 緊急令을 發하야 基本的 公民權의 制限, 私有財產의 制限을 宣言하얏지만 이같은 파시즘的 政策이 極度로 進行되는 獨逸에 果然 不安이 除去될가.

三

獨逸에서 金融恐慌의 颱風이 過한後 이의 防止에 出馬한 英本國 自體에 金融恐慌이 襲來하얏다. 八月一日 政府의 任命한『메』委員會는 明年度 歲入에 十二億圓의 不足이 있슴을 報告하고 그 補塡方法으로서 失業保險, 敎員, 警察官, 軍人等의 俸給의 削減을 勸告하얏다. [illegible] 產業地로부터 輸倫하야 [illegible] 協調하얏스나 勞動階級의 犧牲 없이 赤字를 免할수는 없었다. 이것을 目標로 勞組合總評議會及敎育 [illegible] 反對行動을 行하고 [illegible]

重大化한滿洲對策

서로賣國賊이라罵倒

全體會議大混亂

事變責任은 廣東側에 잇다는 吳稚暉氏의 暴言이 原因으로

憤慨한廣東派退場

【南京廿六日發特電】 昨日 午後中央委員會議에서 滿洲問題을 論議할時 吳稚暉氏는 突然廣東派이 統一을 破壞한셈이라에 滿洲事件이 惹起되엿다고 述하엿이 原因이되야 双方의 代表者은 서로賣國賊이라罵倒하고 議場은 混亂狀態에 陷하얏다 廣東側은 吳氏의 暴言으로 外 蔣介石氏의 計劃的策動이라고 斷定하고 非常히 憤慨하야 即時會議에서 退出하고 孫科, 陳友仁氏를 爲始하야 廣東派人의 多數는 上海에 撤歸하고 會議는 停頓되게 되얏다

錦州問題로

全體會議逢礁

【南京廿六日發電通】 全體會議는 지금重大한 暗礁에 올맛낫다 其原因은 錦州問題에 關하야 南京廣東兩派의 意見의 相違에 依한것이다 即廣東派는 어대까지든지 錦州死守를 命함과 同時에 蔣介石氏도 함께 北行하야 對日戰事에 當하게하고 이로말미암아 境遇에 따라서는 閻錫山氏의 提議를 容하야 山西軍으로하야금 北平을守하게하고 東北軍과 中央軍을關外에 出케하야 蔣, 張으로하야금 이를指揮하게하라고 主張하얏는데 南京派는 右는 蔣, 張逐出策이라고 大反對하얏다이다

錦州를固守

頑强히抵抗

中央執監會議言明

【南京廿六日發聯合】 昨日의 臨時會議는 本日秘密裡에 錦州問題에 關하야 全體會議를 開하고 協議하야 第一次 中央執監 全體會議는 錦州攻擊說에 對하야 結果 全國統一의 目的은 어데서든지 遂行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얏다 日本軍의 對滿計劃은 結果 張學良에게 對하야 錦州를 固守하고 日本軍이 來襲할 際는 頑强히 抵抗하라고 言明하얏다

張學良免職도不得已

全體會議意見

【南京二十六日發電通】 張學良 問題은 全體會議에 有力하게 되엿다 陳銘樞는 使者로하야 午後四時半 上海에 派하고 右意見을 傳하야 兩氏의 來京을 要求하게 되엿다 汪精衛等에 傳하야 議는 延長케되고 主席各院長及部長等의 選定은 來週月曜日로 넘기기로 되엿다

錦州歸還을

榮臻에命令

【北平廿六日發電通】 張學良은 昨日의 中央全體會議의 決議에 依하야 錦州死守를 嚴命하고 來平中의 榮臻으로하야금 錦州歸還을 命하얏다 榮臻은 昨夜深更離平 錦州에 急行하얏다

張學良重要協議

今後對策協議

【奉天廿六日發電通】 北平에서 最近情報에 依하면 張學良은 最重要會議를 開하고 今後의 對策을 協議하얏는데 席上左의 意見이 有力하게 主張되엿다

一、天津地方을 拋棄치아니치 못하게될에에는 어대까지든지 山西經遠을 攻略하야 西北

廣田大使暗殺

체크書記官이計劃

日露戰爭을誘發하야

新國際大戰爭企圖

【모스크바廿五日發電通】 廣田大使暗殺의 計劃者는 其後의 探査에 依하야 莫斯科체코・슬로바키아大使館書記官카루모・와네크(?)로判明되엇다

【莫斯科廿六日發電通】 今回莫斯科에서 發覺된 駐露체코・슬로바키아外交使節은 書記官 카루모・와네크와 廣田大使暗殺計劃, 세루비아의 一廢無賴靑年이 往時墺地利皇太子를 暗殺하야 歐洲大戰의 戰火를 일으킨前例에 做한것이다 即露國家保安部의 取調에 依하더래도 와네크는 廣田大使를 恰似히 쎄르지난드皇太子와 役割으로 選定하고 滿洲事變에 關聯하야 經官吏를 煽動하야 그 손으로 廣田大使를 暗殺하고 日露戰爭을 誘發하야 世界를 하야금 新國際大戰爭의 渦中에 投하려는 企圖인듯하다

錦州應援키로決定

東北全軍을擧하야

北方長官會議에서

【天津廿六日發電通】 張學良을 中心으로한 北方各軍長官會議는 廿五日北平에서 開催하고 錦州對策을 協議한 結果 如左히 決定하얏다 錦州方面이 危機에 瀕할때에는 關內의 東北軍은 全軍을 擧하야 應援에 出動하고 平綏兩線은 山西軍, 津浦線은 山東軍이 各各 準備한다

敗殘兵橫行

齊市도不安

【齊齊哈爾廿六日發電通】 錦木〇〇旅團 主力及 飛行機〇〇〇은 不遠 南下할 貌樣이며 敗殘兵便衣隊 盛히 橫行하고 잇슴으로 齊齊哈爾政權은 不安에 陷하고 잇다

을 根據로할것 三、湯玉麟을 驅逐하고 熱河에 退却할것 一、軍隊는 萬福麟에게 與하고 張學良은 下野할것

閻氏, 應援을提議

【上海廿六日發電通】 閻錫山은 中央政府에 錦州應援의 中央軍出兵을 提議하고 此를 機會로 失墜한 學良의 뒤를 이어서 河北地方을 自己의 勢力下에 收하고 平津에 進出하려는것으로 보인다 不遠北方政局의 變化가 期待된다

各軍에 增援命令

【天津廿六日發電通】 張學良은 天津의 楊柳靑에 잇는 獨立二十九旅와 灤縣에 잇는 砲兵六旅及 平漢線方面의 十八旅에 對하야 錦州增援을 命令하는 一方榮臻의 提議를 容하야 北平에 잇는 飛行機四臺에게 出動準備를 命하얏다

安奉線에 廿六日부터

民國兵一齊히攻擊

日本軍의遼西討伐을妨害次

統制잇는策戰下에

【奉天二十六日發電通】 二十六日 午後三時 二十分부터 安奉沿線 中國敗殘兵은 一齊히 攻擊에 轉하야 目下 林家臺, 鷄冠山 沙河鎭의 三個所에 잇는 日本鐵道守備隊와 交戰中이다 이에 安東에 到着한 新鏡의 〇〇聯隊 二個中隊도 곳戰線에 參加하얏다

【奉天二十六日發電通】 關東軍은 今拂曉를 期하야 牛心臺附近에 遊擊하얏다

近一帶의 敗殘兵討伐을 決行하려고 計劃中이엇는데 敗殘兵은 日本軍의 軍事行動妨害의 目的으로 鳳凰城高麗門 四臺子에 襲來한것이다

【大連二十六日發電通】 安奉線의 敗殘兵은 日本軍의 遼西敗殘兵討伐 計劃을 根底로 攪亂하려 하야 梅히 統制잇는 策戰下에 鳳凰城 高麗門 四臺子를 一時로

隊는 廿五日夜十二時에 鳳凰城 內를 襲擊하고 一部는 各處에 放火하야 日本駐屯兵의 兵舍도 襲擊되엇슴으로 日本兵은 機關銃으로써 應戰하엿다 敗殘兵 九名은 斃死하고 日本獨立守備隊〇中隊上等兵 一名은 瀨光維戰死하엿다 또한 敗殘兵은 監獄을 襲하야 囚徒五十名을 逃走케하고 自治指導員官舍도 襲擊되엇스며 警官駐在所에도 放火하얏다

【大連廿六日發電通】 鳳凰城으로부터의 鳩使通信에 依하면 鳳凰城自治指導員若瀨光男은 即死하얏고 驛員은 無事하다 또한 安奉線 四台子間 鳳凰城間은 鐵道電信話없다 該地에서 破壞되엿다

【奉天廿六日發電通】 鳳凰城驛은 敗殘兵에게 破壞되엿다

鳳凰城을襲擊

驛과 監獄破壞

二時間交戰後退散

【新義州廿六日發電通】 徐文海一派와 氣脈을通한 敗殘兵의 一隊는 連山關, 本溪湖에서 鳳凰城에 來하야

猛活躍하는
람프손英公使

英米獨, 中國에 好意

英公使猛烈히活動

【天津廿六日發電通】 列國의 北中에서의 活動은 左와 如하다

英國…람프손公使는 蔣, 張聯盟을 굿게하고 蔣의 主席復活을 劃策하고 錦州軍의 潰滅을 阻止하려고 武官을 由ㅂ 天津으로

米國…英國에 步調를 맞추어 聯盟調査員 來着을기달려 日本을 抑制하려고한다

獨逸…中央軍에 國閒百餘名을 擴張에 專力함

佛國…事變來 避難民收容을 稱하고 佛租界隣接地 十萬坪을 乃妙히 손에 넣코 租界擴張의 宿望을 達하얏다

顧事가 일을 錦州에 派遣하야 日本軍을 牽制하고 또한 敗殘兵驅集이 업다고 宣傳을 行하야 로이텔通信을 故意하고 張學良援助를 露骨的으로 示하과 同時에 張學良과 北方의 團結을 圖하야 張의 軍을 援하고 北平 陸軍大學敎官들도 提供한다고하야 獨逸新聞은 蔣張을 援助한다

注目되는 본네氏來日

聯盟官房長

【東京廿六日發電通】 中國의 救濟制度 改善援助키爲하야 國際聯盟으로부터 派遣된 聯盟調事務長아부놀氏의 官房長본네氏는 廿五日午後四時 南京으로부터 來朝 政府要路와 現下日中問題에 關한 意見을 交換코져 同氏의 渡日은 時期로보아 注視되고 同氏는 佐藤尙武大使와 同道西北利亞經由하야 歸國하리라한다

討伐軍全滅

武漢도危險

共產軍의勢力優勢

【漢口廿六日發電通】 湖北省黃安에서 共產軍 睢總動軍에 包圍되어 中央軍 三十一師張印相은 戰死하얏고 師長以下 各旅長 至 全部 戰死하얏다 同縣城은 共軍의手中에 落하고 武漢은 直接共產軍의 活路를어 全軍은城外 脅威를受하게되엿다 又天門에서 二十四日 拂曉 [illegible]

安達氏에同情

復黨氣運釀成

九州團體協力決議

【東京廿七日發電通】 安達氏는 어지는 어데까지 同答하겟다고 言明하얏다 또한 漢邦氏는 本部의 民政黨을 脫去한以來 稱히 自重하고 잇슴으로 黨內에서도 安達氏에 對한 同情이 濃厚하야 復黨의 氣運이 釀成되고 잇다 即九州團體는 過日의 會合에서 復黨에 對한 盡力을 決議하얏는데 此에 對하야 特히 山本實彦, 濱邦惠和佐佐木方照의 諸氏는 廿六日 會散會後 院內에서 顧問木總務와 會見하고 安達氏의 復黨을 希望한바이엇다 此에 對하야 顧問木總務도 自己로서는 多少 考慮할터이며 또한 安達氏의 復黨을 企圖하고 잇다

解散을豫想

選擧對策協議

民政黨幹部會

【東京廿七日發電通】 民政黨에서는 廿八日幹部會를 開하고 解散을 豫想하고 選擧對策을 協議할려니와 解散되면 [illegible]

三國干涉에對한

日本의回答과聲明

積極的滿蒙政策의眞髓披瀝

三國大使에手交

【東京二十六日發聯合】 錦州不攻略에關한 英米佛 三國政府의 同答覺書에 對한 日本政府의 回答은 二十七日午前十一時 外務省에 駐日英大使 린드레, 米大使 포부스, 佛大使 마텔三氏의 來省을 求하야 永井次官으로부터 各個別的으로 手交하기로 決定하얏는데 右同答과 同時에 日本政府는 特히 聲明書를 發表할터로 政府의 聲明書는 手交할 時 外務省에서 發表하기로 되얏다

滿蒙政策의 眞髓를 披瀝하고 日本政府는 門戶開放, 機會均等을 原則으로하야 어데까지 支持하야 滿蒙의 地方에 世界의 公論에 訴하려는 外에 內外人安住의 樂土를 期하려는 同時에 日本政府의 立場을 闡明하고 同日午後二時 外務省에서 一般에 公表하기로 되얏다

【東京廿七日發電通】 二十七日午前十時 三國政府의 警告에 對한 日本政府의 同答書及 二十七日 錦州方面의 日本軍事行動에 對한 聲明書는 十二月十日의 理事會決議의 文字와 精神을 無視하는것이 아님을 說明하는 同時에 進하야 日本日本의 聲明書를 手交하얏다

錦州軍益益

戰鬪準備進行

別動隊에正規兵混入

【奉天着電】 錦州方面 民國軍은 益益 戰鬪準備를 하고 잇다 去廿三日田庄台附近의 大凌河右岸石山站西北方高地及小黑山附近에 約一里의 高粱屯附近에서 中國의 遺棄한 陣地를 構築中이며 此等別動隊의 行動은 그 警備司令의 別動隊義勇軍中에는 正規兵이 混入하야 出席 指導하고 旅長孫德基이다 令은 黃顯聲, 副司令은 第十九旅長孫德基이다

師團司令部

〇〇方面에

遼西敗殘兵討伐로

【奉天二十七日 午後零時十六分發電通至急報】 遼西敗殘兵討伐의 目的으로 多門師團長은 本日午前十一時五十分 遼陽發軍用列車로 師團司令部를 〇〇方面에 進出하얏다

馮玉祥赴京

【北平二十六日發電通】 中國側消息에 依하면 馮玉祥은 今朝南京으로 出發하얏다한다

益益積極的인

別働隊의行動

大黃旗堡附近도緊張

【奉天着電】 中國軍 別働隊의 義勇軍中에는 正規兵이 混入하야 指揮하고 잇는것이 確實하다 田庄台附近의 戰鬪에서 敵이 遺棄한 死體의 軍服에 依하더래도 明白히 證明되엿다 此等 別働隊의 行動은 益益積極的이여서 그 錦東의 黃顯聲 副司令은 第十九旅長孫德基이라한다 【奉天廿六日發電通】 白旗堡에 잇는 第四義勇軍 總司令耿某 隊의 周圍는 全線部隊에 前進命令을 發하고 新民府의 西方 大黃旗堡附近에 公安隊를 買收하야 午前十時半 敗殘兵하다 其一部는 再次 來襲中이다 그리하야 戰線의 一部는 現場에 急行하야 目下 交戰中이여서 同方面의 形勢는 今朝來 緊張하얏다

各守備隊急行

【奉天廿六日發電通】 敗殘兵이 온다는 急報에 午前一時五十四分 鷄冠山으로부터 〇〇名, 午前二時十二分 連山關으로부터 〇〇名, 午前二時 午前二時二十七分 本溪湖로부터 〇〇名의 守備隊가 安奉線現場에 急行하고 安東으로부터 高本中尉指揮의 部隊〇〇이 午前一時半 出發 鳳凰城 高麗門間 鐵道를 保護키爲하야 進發하얏다

行한 日本守備隊는 今拂曉二時間에 亘하야 敗殘兵五百과 交戰하얏는데 敗殘兵은 死體三十을 遺棄하고 北方에 潰走하얏다 日本軍은 目下追擊中이다

滿鐵線及其他

地帶攪亂을命令

榮臻黃顯聲連名으로

【奉天廿七日發電通至急報】 榮臻은 昨日 女李(?)時二十二分發 黃顯聲과 連名으로 各地義勇隊及 別働隊에 對하야 廿八日以後 一齊히 滿鐵線及日本軍守備地帶를 擾亂하도록 命令을 下하얏다

錦州에到着

義勇軍編成中

學生團多數

【奉天廿六日發電通】 最近關內에서 學生團多數가 錦州에 來하얏는데 이미 到着한것은 汝爲奈等 上海靑年團 濟南總血團等의 十七個團體이다 彼等은 가장 過激分子로써 成立된것인데 錦州城外에서 二千四百餘名이다 目下 榮臻揮下에서 靑年義勇軍을 編成中인데 右學生隊一部는 白旗堡에 來着하야 잇다

本庄司令官

重要會議

多門師團長과

【奉天廿七日發電通至急報】 本庄司令官은 廿六日午後一時十六分 奉天發列車로써 遼陽에 向하야 多門師團長과 今後의 用兵作戰에 對하야 最後의 重要會議를 하얏다

日本側의

增援隊

天津에到着

【天津廿六日發電通】 第〇師團으로부터 派遣된 步兵〇〇大隊와 特科隊를 搭載한 中國援隊 搭乘船〇〇隻은 廿六日午前八時 塘沽에 入港午前十一時軍用列車로 同地發正午天津에 着 日本租界外大營外에 分宿하얏다

天津領事會議

米領事主唱으로

【天津廿六日發電通】 日本軍

辭令

十二月廿四日附發令

專賣局屬		布施 靜人
同		山田 學
任專賣局副事務官(七等)		岡田 芳吉
同		西原 篤
任專賣局副事務官(八等)		永倉 藤次郎
專賣局技手		小林 武
同		光永 友弘
任專賣局技師(七等)		
稅關事務官補兼專賣局書記		井上 忠夫
任仁川稅關長(七)		
命仁川稅關在勤		國見 佐助
任稅關監視官(七等)		
總督府技手		長田 大
任京城帝國大學助教授		
命江原道林業試驗所在勤		平野 勝次
任京城醫學專門學校書記		
任道警視(七等)		
道警部兼水原府警察署		
官講習所助敎授		森 雄能
任道警視(七等)		
命京畿道在勤		馬場 猛郎
任道警視(七等)		
命咸鏡北道在勤		小松 孝
同		
任道警視(七等)		
命全羅北道在勤		矢嶋 佐太郎
同		
任道警視(七等)		
命京畿道在勤		藤井 田鶴
任道警視(八等)		
命全羅南道在勤		松浦 倉之助
同		上木屋喜左衛門
任道警視(八等)		小林 信淳
同		川村 耀吉
任道警視(八等)		
命平安北道在勤		金 禹鎭
同		金 大元
任道警部(七等)		
命咸鏡北道在勤		塚田 隆官
道技手		小平 亮二
任道視學官(七等)		
總督府技師		石原 俊雄
陸軍砲兵大尉		
總督府屬		中村 彥治
陸軍歩兵大尉		
命咸鏡北道在勤		
總督府屬		梅田 宗二郎

任道理事官(七等) 命京畿道在勤	百井 義雄
道屬	
任道理事官(七等) 命忠淸南道在勤	春本 宗文
部屬兼府專賣局屬	
任道理事官(七等) 命全羅北道在勤	吉田 澄
道屬兼專賣局屬	
任道理事官(七等) 命慶尙南道在勤	堀井 元藏
部屬兼秘書官兼專賣局屬	
任道理事官(七等) 總督府屬	倉富 新
任道理事官(七等) 命慶尙北道在勤	生田 銀造
總督府屬	
任理事官(七等) 命咸鏡北道在勤	達矢 良嗣
道屬	
任理事官(七等) 命平安南道在勤	李 晳求
部屬	
任理事官(八等) 命京畿道在勤	坂本 岩之助
道屬	
任郡守(七等) 命京畿道利川郡在勤	河野 熊一郎
府屬	
任郡守(七等) 命京畿道仁川郡在勤	石井 重次
道屬	
任郡守(七等) 命忠淸南道燕岐郡在勤	岩崎 末彥
府屬	
任郡守(七等) 命全羅南道靈光郡在勤	淘 喜作
道屬	
任郡守(七等) 命全羅南道潭陽郡在勤	山崎 三郎
部屬兼專賣局屬	
任郡守(七等) 命慶尙南道昌原郡在勤	大仁田 良造
任(七等) 命全羅北道井邑郡在勤	大谷 源右衛門
任郡守(七等) 命平安南道安州郡在勤	
任郡守(七等) 命平安北道義州郡在勤	平尾 篤一
任郡守(七等) 命平安北道昌城郡在勤	佐瀨 直三
任郡守(八等) 命全羅北道高敞郡在勤	大木 保二
同	
任郡守(八等) 命慶尙北道迎日郡在勤	平安 李夫
任郡守(八等) 命慶尙南道宜寧郡在勤	延 秉鎬
同	林 善浩
任郡守(八等) 命慶尙南道河東郡在勤	崔 秉漢
任郡守(八等) 命慶尙北道永川郡在勤	成 俊源
命慶尙北道達城郡在勤	

一、錦州進擊이 切迫함을 感知한 亞米利加領事의 主唱에 依하야 天津의 治安維持 爲하야 日本을 除한 領事會議를 開하기로 하엿다 今明日中에 開會할 豫定이다

橫說竪說

▼農業地主로부터 市地主로 變하는 東拓, 前日에 주었든 小作地를 突然히 回收▼小作法도 小作爭議調停法도 實施되지 않는 朝鮮에 小作權이 있을리가 있느냐 ▼地主의 權限이 거니와 ▼某某 耕作해온 土地를 何等 要求하는 小作人에게 通知도 없이 回收함은 人道問題. ▼하물며 經營事業을 妨害하는 局이 日淸日 [illegible]

▼平末이 되엇다고 內村은 雜卂만 北村은 會合▼金融出 再禁止도 朝鮮商業界엔 別無常이 가。

○ 國民黨 中央 執監會議에서 南廣派 各己 實際行動을 하다가 마침내 南京派를 통지고 上海로。 聯合 中에 로 何時學會